

이미용 봉사·주거 개선...이웃 돕는 온정 확산

재능기부 스토리 국립나주병원 환우 이미용 재능기부자 모집

기부받은 난화분, 시민 기부 참여 방식으로 배분
지역 후원자들 선풍기·도너츠·장터 수익금 전달

국립나주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차례 병원에서의 이미용 재능기부 해주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환우분들에게 컷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능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은 광주재능기부센터 062-431-0918번으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차평지점 박영애씨가 기부.

광산구 나산거구에서 당선된 공병철 의원이 난과 화분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난화분은 시민 여러분께 1만 원에서 2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배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난화분이 필요하신 분은 광주 남구 화산로 30 진월국제테니스장 지하 광주공유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차평지점 박영애 선생님께서 선풍기 2대를 기부해주셨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가고 계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선풍기를 기부해주신 박영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롯데마트 월드점점 1층 입구에 위치한 '던컨 도너츠' 주애선 대표님께서 도너츠를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도너츠는 모아동생활시설에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사랑가족봉사단' 김혜정 단장님께서 광주공유센터에서 진행된 울망줄망 공유장터에 참여하셔서 플라마켓을 진행하셨습

니다. 플라마켓을 진행하시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해주셨습니다. 김혜정 단장님은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가고 계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40대 김모 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다녔는데 심한 독감 후유증으로 심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더니 심장관련 수술을 받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돼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 씨는 목 디스크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으로, 근로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뒤 생계비를 지원 받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큰 아이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현재는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둘째는 중학생인데 정서적 불안과 대인



이미용 봉사인 악마 용원터를 기부한 미스터독막 이성훈 대표.

관계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구성원의 질병과 장애, 그리고 이주여성이라는 상황 등으로 인해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이 크게 저하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밤이 모자라 성별이 다른 첫째와 둘째가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공간을 원하는 둘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던 김 씨는 시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면 방을 따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비어 있던 집이라 화장실을 포함한 전체 구조가 노후화돼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김 씨의 남편이 우선 급한 데로 이곳 저곳을 수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개인이 수리를 하기에 버거운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 집안 전

체를 고치기에는 1년을 넘길 것 같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와 행복한 목수 사업을 통해 집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하고 집안 곳곳을 수리하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무엇보다 둘째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겨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김 씨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으니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김모 군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군은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김 군은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없고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필통과 파우치를 기부한 광주 남구 가족센터 장미영 센터장.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슬에 취해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식사 등 일상 생활 전반이 방임 수준이어서 어쩔 때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아보니 학원은 전혀 다니지 않고 있으며 주말이 되어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등 고립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방심으로 신고해 아버지가 경찰 조사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온 김 군의 아버지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잦은 음주로 몸이 많이 망가졌고 경제적인 근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긴급지원 신청을 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술을 끊기 위한 치료에 들어갔으며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 이어진 이혼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자아 비판 등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군과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수 있게 돕고, 김 군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함께 김 군이 좋아하는 야구장에 가서 함께 응원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달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김 군은 의아해하면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 군이 아버지와 함께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 431-0918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